

 해양수산부		<b>보도자료</b>		 
		배포 일시	2021. 8. 24.(화) 총 5매(본문 3, 참고 2)	
담당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과장 정기원, 사무관 이경주, 주무관 고선미</li><li>• ☎ (044)200-5542, 5535</li></ul>	
보도일시		2021년 8월 25일(수)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5.(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 지난 1년간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가장 잘한 곳은 어디? -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 1, 우수 1, 장려 2)를 선정하여 25일(수) 발표하였다.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뛰어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과 8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하였다.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는 2022년에 6천만 원~1억 6천만 원의 특별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충남 서천서부소형선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무분별한 자원남획 및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조업과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인의식이 결여된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어선어업자 86명이 모여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주요 생선 품종인 꽃게는 7.4cm, 농어는 35cm, 쥐노래미는 25cm 이하 크기는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법\*에 비해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꽃게, 넙치, 조피볼락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에도 힘썼다. 또한, 매년 해안쓰레기 청소,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회원들에게 친환경 부표를 지급하여 조업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수산물 판매 금액이 2018년 51억 원에서 2020년 1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물론, 단일 업종으로 이루어진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자망, 복합,

통발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꽃게 6.4cm, 농어 30cm, 쥐노래미 20cm 이하

우수로 선정된 경남 거제정치망공동체는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어획량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23명의 어업인이 모여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이 공동체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정치망 그물 인양 크레인 14대를 제작·설치하고, 주 생산품종인 멸치 삶는 솥(자숙솥) 시설 현대화로 품질을 높여 위판가격 상승(1.5kg당 2만 5천원→3만 5천원)을 이끌면서 어가소득을 보전하였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대구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하기도 하였다.

장려로는 전남 대서안남공동체와 인천 영암공동체가 선정되었다.

대서안남공동체는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른 어촌계원 간 불화를 해소하고 어장관리 지식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였으며, 3.5cm 이하의 새꼬막은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에도 없는 자원관리 규정을 자체 설정하고, 공동체 어장 195ha 중 60ha에 대해 매년 순번제로 어장 휴식년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새꼬막 공동생산·공동판매를 통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원별 3천만 원의 소득을 분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 공동체 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불화가 없어지고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영암공동체는 2007년에 처음 결성되었지만 인식부족 등으로 활동이 미흡하다가, 2015년에 45세의 젊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지락어장 휴식년제 도입 및 산란기 조업 금지 등을 통해 자원을 보호하였다. 특히, 영암 바지락 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체 노년층의 일손을 활용하여 소포장 깐바지락을 제품화함으로써 바지락 판매 소득이 2019년 6천 4백만 원에서 2020년 1억 5천 1백만 원으로 증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선 우수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우수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어선안전을 위한 수리·정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귀어·귀촌인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에 귀어·귀촌인 참여 점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와 자율관리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12개 시·도 정책 설명회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2022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주요 활동 사진

### □ 최우수: 충남 서천서부소형선박 공동체



해안가 청소



친환경부표 보급

### □ 우수: 경남 거제정치망공동체



정치망 그물인양 크레인 설치



기존



개선

멸치 자숙술 현대화

### □ 장려①: 전남 대서안남공동체



새꼬막 포획금지체장 설정



새꼬막 공동생산·공동판매

□ 장려②: 인천 영암공동체

	
<p>바지락어장 휴식년제 실시</p>	<p>소포장 깬바지락 제품화</p>